



함께 걷자! 프로젝트

일본성공회 동일본 대재해 피해자 지원

소식지
제 12 호
2012 년 8 월 1 일 발행



△ '11/9/24 히로다 가설주택 자치회 부녀회원들 (우) 과



'11/3/12
피난소가 된 체육관



'11/7/23
가설주택에서의 성찬식



'12/3/11 이소야마 성요한
교회에서의 기도



'12/6/9
신지베이스 개소 예배

신지베이스 개소

- ✎ 마쓰모토 히로시
「신지 2 년째의 행보」
- ✎ 미야케 노부유키
「신지, 그리고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해」

2012 년 6 월, 후쿠시마현 신지마치에 함께 걷자! 프로젝트의 3 번째 현지 거점이 되는 신지베이스 "피해자 지원 센터 신지"가 설치되었습니다. (개소식의 모습은 소식지 11 호에서도 소개 되고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1 년간 신지마치와 함께 걸어온 베이스 상주 직원과, 행정 면에서도 향후 신지마을을 바라보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후쿠시마 (가칭) 베이스 설치

후쿠시마 성 스테파노 교회를 거점으로 활동 개시

외국인 지원은 개별 지원으로

이시노마키시, 다카쵸시, 게센누마시 등

〈후쿠시마현 소마군 신지마치〉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의 경계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역에서 바다까지 수백 m, 시가지는 역보다 바다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신지 2 년째의 행보 -우리는 누구와 함께 걷고 있나요-

미카엘 마쯔모토 히로시 함께 걸자! 프로젝트 "피해자 지원 센터 신지"담당자

지난 6 월 9 일, 신지마치 사무소가 보이는 멋진 장소에 "피해자 지원 센터 신지"의 개소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당일엔 호우에도 불구하고, 임시 주택 거주자를 비롯해, 제 3 및 제 7 행정구역장, 신지마치 총무 과장과 시의원, 인근 주민, 민생 위원 그리고 미야기현에서도 후지 유치원, 센다이 기독교회 성가대 및 신도, 함께 걸자! 프로젝트 여러분 등이 많이 참석하여 주셨고, 작은 다목적 홀은 들어가지 못한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피해지 · 이재민 여러분과 이 날을 경축 "2 년차 앞으로, 신지마을에서 함께 걸어 갑시다"라는 마음을 나누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작년 대지진 이후, 각지에서 활동해 온 지원 활동 중, 신지 활동은, 돌아가신 교회 3 분의 유족과, 주거를 잃은 교회 관계자가 생활을 하고 있는 신지마치 가설 주택을 중심으로, 센다이로부터 차를 이용한 1 년이었습니니다. 게다가 왕복 3 시간이 소요 되는 신지 활동이었습니다. 한편 우리가 방문하면, 항상 "안녕하세요, 들어와요" "오늘은 혼자?" "항상 수고"... 라든지, 아이들과 만나면 "아! 맛짱이다" "오늘 놀 수 있는거야?" "공부 봐주시는?" "... 라든지, 돌아갈 때에는 "돌아 가는 길에 야채 가져가 ""어! 또 돌아가는거야? ""다음은 언제 오는거야? "..., 그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난무하는 관계를 만들어 온 1 년 이었습니다.



히로다 가설 주택 입주자 (오른쪽)와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당초 우리의 형편이나 잣대로 만들어진 의미, 제한된, 일방 통행적인 관계와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긴급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지원 활동의 초기 활동 패턴과, 여러 면에서 "하는 측과 받는 측" 패턴으로 움직여 갑니다. 문제는 이 패턴을 <언제 · 어디서 · 누가 · 누구에게 · 어떻게 전환해 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결여되면 케치볼 서로 대등한 상호 · 호조의 관계로 전환하지 못하고 "하는 측과 받는 측"이라는 관계의 고착화가 점점 진행되어 버립니다.

2 년째는 피해 지역 · 이재민 여러분과, 말 그대로 "함께 걸어가는 거점을 신지마치에 만들어 갑시다"는 <센터 신지 구상>이, 신지 프로그램 회의에서 협의되게 된 것은, 올 3 월 11 일 별세자 기념 예배가, 피해를 입은 신도 주택 부지에서 엄숙하게 거행될 때 부터였습니다. 한 달 전 2 월 상순에는, 동일본 대지진 일주년을 앞두고 중간 평가가 제안되며, 센다이 사무실 개소 예배에서, 5 월로 1 년이 되는 시기와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1 년 6 개월이 지나려 하고 있습니다. 재차 재해를 입은 모든 분들, 특히 별세하신 많은 분들과 그 유족에게 마음을 떨쳐주고 싶습니다. 일상적인 활동 전에 기도 "탄원"에는, 프로젝트의 구호 활동 방침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정신 이념에 설 때, 여기 신지마치에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 정신 이념이 크게 바뀌어 가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원점으로, 더 가까이 더 명확하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 지원 센터 신지"을 지역민과 자원 봉사자들이 드나들고있다

프로젝트의 슬로건이 되고 있는 "함께 걸자"가 구현 되어 가는, "피해자 지원 센터 신지" 설치의 가장 큰 구상입니다. 누구와 "함께 걸자" 인가. 어디에서 "함께 걸자" 인가. 무엇을 "함께 걸자" 인가.

"피해 지역 · 이재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새로운 거점인 신지센터 구상을 실현합시다"라는 본부장 (카토 히로미치 주교)의 표명과, 프로그램 디렉터 (하세가와 키요즈미 사제)가 지원센터 신지의 센터장을 겸임하게 된 것 등의 경위는, 2 년째에 들어간 담당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든든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프로젝트 스텝의 역할과 책임을 자각하면서 협동하여 이재민 · 재해지 · 재해 교구, 날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풍부하게 이용되고 싶습니다.

신지, 그리고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해

미야케 노부유키 히로다 가설주택 자치회장· 신지마치 의회의원

지난해 3월 11일 발생한 대지진으로, "큰 해일이 온다"는 방재 방송이 있어, 매년 실시한 대피 훈련대로 라시하마지구로 향했습니다. 중간 도로 함몰, 다리는 큰 단사가 생겨 가지 못하고, 우회하여 가다 보면, 기와가 떨어져 있고, 오래된 집은 붕괴되었습니다. 한 채 한 채 소리를 질러 지역 주민을 후쿠다 초등학교에 피난 유도 후, 이소야마 지구로 돌아와, 지구에서 가장 고지대에 위치해 대피소로 지정된 이소야마 성 요한 교회로 대피하도록 유도하고 있을 때, 100m 앞 해안에 있는 높이 20m를 넘는 소나무 위로부터 갑자기, 흰 파도가 덮쳐 왔습니다. 쓰나미였습니다. 바로 눈앞의 집에 겨우 도달했지만, 거기에 계신 어머니에게 말을 걸지도 못하고 차를 U턴해, 해일에 쫓기듯, 2km 앞 국도까지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교회로 피난한 사람들은 작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불로 따뜻함을 유지하며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전원 무사히 구출되고, 불을 피운 장소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에서 어머니를 포함한 8명의 희생자가 나온 것은, 유감스럽고 후회가 남습니다. 이후 후쿠다 초등학교에서 대피소 생활을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없이 몸만의 상태였습니다. 지역 분들로부터 추위를 막기 위한 의류, 담요, 난로, 집에서 키운 소중한 야채, 쌀을 지원 받고 게다가, 냄비, 숟, 나무류를 준비해 장기간 불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 성공회에서는 해외를 포함한 조직으로부터 음식, 의류, 기타 다양한 지원 물자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2년차에 들어선 현재, 신지마치에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담당자가 상주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구장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소리를 행정에 전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신지마치의 지방 자치 단체 의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큰 과제는, 아이들의 미래 도시의 부흥(방사능 대책, 방조제, 농림 수산업, 상하수도 및 철도 생활 도로 등 교통망 정비, 집단 이전 사업 등)입니다. 현재 가설 주택에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walknow!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는가?

프로젝트가 어디를 누구와 걷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지금까지 소개한 프로그램의 후속 등 현재 활동 모습을 전하겠습니다.

■후쿠시마시 (후쿠시마현) / 후쿠시마 (가칭) 베이스 설치

6월말 운영위원회에서 7월부터 후쿠시마시에 새로운 베이스를 설치하기로 결정. 후쿠시마 성 스테반 교회를 거점으로 활동해 간다. 이전부터 후쿠시마에 베이스를 두어 활동을 중요시 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방사능의 영향등 어려운 문제로 신중하게 논의를 거듭해 왔다. 베이스장은 가게야마 히로미 사제(후쿠시마 성 스테반 교회 관리 목사) 근무, 타니쇼지 주교(전 오키나와 교구 주교)가 매월 3주 정도 후쿠시마에 머물며 협동해 간다. 활동의 본격화를 앞두고 인근 가설 주택과 관계 만들기와, 미소유치원과의 연계가 시작되고 있다.



■이시노마키시 (미야기현) / 외국인 피해자 개별지원

이시노마키시에는 외국에서 시집 온 400명 이상의 여성이 살고 있지만, 일상 생활 그 자체에 관련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어 비자, 취업, 결혼, 자녀 등 개인에 관한 것이 많고, 각각 정중한 도움이 필요로 되고 있다.

또한 많은 가정에 아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외국인 엄마들은 언어 문제로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프로젝트에서 개별적으로 어머니의 지원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초중 학생의 숙제를 돕거나, 여름 방학 등의 장기 휴가를 센다이에 거주하는 대학생 자원 봉사자를 모집, 외국인 어린이와 그 친구를 대상으로 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가설지원

- ◆ 체조프로그램 / 가마이시 (키타나카시마 가설)
- ◆ 장보기 버스 투어 / 나토리시 (하코즈카 사쿠라 단지)
- ◆ 차모임, 바자/ 신지마치 (히로다 가설, 간고야 가설 등)
- ◆ 카페 (일본동맹기독교단과 협력) / 이와키시 (이즈미 타마쯔 가설, 와타나베쵸 히루노 가설)
- ◆ 축제준비 / 이와키시 (와타나베쵸 히루노 가설)

그 외에도 ... 호별 방문, 감자 배부, 과자 만들 기 교실, 수예 교실, 종이 접기 · 그림 편지 교실, 피자 만들기, 가설 청소

장애인 지원

- ◆ 구입지원 / 센다이시 (마도카) , 게센누마시 (히마와리)
- ◆ 작업 보조, 간판 제작 / 게센누마시 (히마와리)
- ◆ 부인회 협력 히마와리 쿠키 판매의 지원 경과 보고 위해 일본성공회 부인회장 회의 참석 / 요코하마 성 안드레 교회

◆ 마도카 새 작업소 개소

쓰나미로 시설이 파괴된 센다이 와카바야시 구 아라하마의 작업장 "마도카 아라하마"가 6월 25일 센다이시 타이하쿠구의 새로운 작업장으로 이사, "거리의 공방 마도카"라고 이름 짓고, 다시 활동을 시작 했다. 지진 재해로부터 1년 이상 빌려서 활동 해오다 복지 시설도 가깝고, 통원하며 익숙해진 지역 에서 다시 시작된다.

지금까지 마유 세공에, 앞으로는 빵 제조 판매, 실크 스크린 인쇄 등도 실시한다. 7월 21일 개소 기념식.



외국인 지원

- ◆ 손수 만드는작업 / 미나미산리쿠
- ◆ 개별지원 (어린이 학습지원, 시청, 직업안정소예의 대응 등) / 이시노마키시, 미나미산리쿠, 다카쵸시
- ◆ 영어교사 육성 강좌 / 이시노마키시, 미나미산리쿠, 다카쵸시
- ◆ 식품 등 방사선량 검사 (일본 그리스도교단 엠마오 의뢰) / 후쿠시마

기타

- ◆ 재건축 공사중인 센다이 기독교회의 집 운반을 위해 자원 봉사자들과 "나사렛의 집"정리 / 센다이
- ◆ 아오바센슈관 보수공사 종료

2012년 5월부터 실시해 온 내진 및 보수 공사가 6월에 완료했다. 오랜기간, 동북 교구 수양회와 명상 모임 장소로 활용되어 온 시설 이나 향후 자원 봉사 활동 · 시찰 등의 거점으로서 또한 재생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예정. (※ 재생 프로그램은 ...

방사능 피해로 야외 활동 등이 제한되는 것이 일시적으로 그 땅을 떠나 보내기위한 프로그램)



- ◆ 이와테 ◆ 미야기 ◆ 후쿠시마의 활동을 나타냅니다.

지면 사정상 게재되지 않은 활동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거점의 블로그를 참조 하십시오. 홈페이지 : <http://www.nskk.org/walk/>

칼럼 > 그날 그때, 그 사람.

②어린이들 그림

외국인 지원의 일환으로 다른 단체와 협력하면서 "영어 교사 양성 강좌"를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현 각처에서 실시해 왔습니다. 지진으로 일자리를 잃고, 새롭게 영어 능력을 살리는 일을 시작하고 싶지만, 교수법을 모르는 외국인을 위한 지원입니다.

얼마 전, 프로젝트 센다이 사무실을 회장으로 강좌가 개최되었을 때입니다. 어머니들이 수강하고 있는 동안, 별실에서 4명의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 ○ ○ 씨의 집!" " ** 씨의 집은 이것!" "○ ○ 씨의 집에는, 해일이 오지 않았어! 높은 곳에 있으니까. ** 씨의 집도 이쪽이 좋아요, 해일이 와요 " 지진 해일 피해 지역에 살고 있던 학생 아이였습니다.

작년 3월 그 눈으로 해일을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전, 미나미 산리쿠쵸에서는 2살 소년이 레고로 "가설 주택"을 만들어 놓고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작은 몸과 마음에서 성인과는 다른 감성을 가지고 지진과 마주 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2012년 6월 센다이권 베이스 스텝)



함께걷자! 프로젝트 소식지 제 11호 2012년 7월 1일 발행
 「함께걷자! 프로젝트」사무국 OPEN 월~금 10:00~17:00 CLOSE 토·일·축
 〒980-0830 미야기현 센다이시 아오바구 고쿠분쵸 3-4-5 크라이스 빌딩 2층
 TEL : 022-265-5221 FAX : 022-748-5321 E-mail : walk@nskk.org web : <http://www.nskk.org/walk/>